

한·일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도입의 현황과 문제점

Electronic Journal : Challenges for University Library in Korea and Japan

김수연(Su-You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1. 일본의 기관 |
| II. 학술잡지의 변화 | 2. 한국의 기관 |
| 1. 학술잡지의 전산화 | IV. 한국과 일본의 대학도서관 현황과 문제점 |
| 2. 학술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 | 1. 일본의 대학도서관 |
| III. 한국과 일본의 전자저널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 | 2. 한국의 대학도서관 |
| | V. 결론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학술잡지, 특히 전자저널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의 정부정책, 관계기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입현황, 전자저널 컨소시엄 참가, 현재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 일본과 한국의 전자저널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 협력의 가능성 등을 분석, 비교, 고찰하였다.

주제어 :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컨소시엄, 한국 대학도서관, 일본 대학도서관

Abstract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case of scholarly journal - electronic journal in particular - which are currently in a state of change and investigates the policies of the Korea and Japan government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he decision to acquire electronic journals, participation in consortia, and the present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and the differences in policy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considered with a view to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Key Words : university library, digital journal, consortia, Korea library, Japan library

* 筑波大學大學院 図書館情報學 修士課程(dy4540@hotmail.com)

· 접수일 : 2004. 2. 25 · 최초심사일 : 2004. 3. 3 · 최종심사일 : 2004. 3. 12

I. 서 론

1990년대 전반부터 전자도서관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각국 정부의 정책, 다양한 프로젝트를 거쳐 현재와 같은 전자도서관이 탄생하였다¹⁾. 일본의 경우,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관기능의 추진에 따라, 1996년 전자도서관이 설립된 나라센탄카가꾸기술대학원대학 도서관(奈良先端科學技術大學院大學圖書館)에 이어 교토대학 도서관(京都大學圖書館), 쓰꾸바대학 도서관(筑波大學圖書館)에 전자도서관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배치되었다. 1998년에 3개 대학, 2000년에 10개 대학에 예산이 배치되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 도서관자동화가 시작된 이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문시스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등 전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기능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 정보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연구자들에게 정보공유수단으로써 이용되어온 학술 잡지는, 지금까지 인쇄매체였던 것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전자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또 최신정보를 원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학술잡지의 전자화는 촉진되고 있고, 인쇄 잡지의 가격상승으로 전자저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쇄 잡지와 전자저널을 같이 구독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서관은 상업출판사의 독점화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학술잡지, 특히 전자저널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의 정부정책, 관계하고 있는 기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입현황, 전자저널 컨소시엄 참가, 현재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 일본과 한국의 전자저널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 협력의 가능성 등을 분석, 비교,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과 홈페이지조사로, 한국과 일본의 전자저널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 일본은 교토대학(京都大學), 쓰꾸바대학(筑波大學), 리쯔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을 한국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를 선택해, 전자저널의 계약 내용, 운영·관리현황,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 등을 현장 사서와 인터뷰하여 조사하였다.

1) 原田勝 他, 電子圖書館(東京: 勁草書房, 1999), pp.1-16.

II. 학술잡지의 변화

1. 학술잡지의 전산화

인쇄물의 학술 잡지는 1665년 프랑스의 'Journal des Scavans'와 영국의 'Philosophical Transactions'가 출판된 이후 3세기 이상 연구자들 사이에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한가지로 지식의 창출, 제공, 보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학술잡지의 세계에서 학문의 세분화, 논문수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의 이유로 새로운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모색이 이루어졌다²⁾.

처음, 연구자들의 의견교환의 매체로써 사용되어온 인쇄 잡지는 19세기말부터 논문투고와 피아레뷰(peer review)에 따른 학술잡지의 배포로 학술정보의 유통구조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정보량의 증가에 따라 학술잡지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빠른 출판과 배포를 기대하는 이용자들의 환경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환경의 범위를 넓혔다.

출판사측의 학술잡지에 대한 가격인상은, 도서관측의 구입가격의 급격한 증가와 구입 저널 수의 감소인 학술잡지의 위기(Serials crisis)를 야기 시켰다. 학술잡지의 위기는 1980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이것은 도서관에서 보면 가격이 상승한 결과, 개인구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1970년대 당시 개인과 대학이 구독하고 있는 잡지의 비율은 7:3정도로, 잡지는 개인이 구입해서 읽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독료의 상승으로 개인 구독은 감소하고, 대학 도서관에 의존해서 읽는 비중이 높아졌다.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감소하고, 학술잡지의 구독 취소가 증가한 결과, 이익을 유지하기위해 출판사는 가격을 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구독취소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격은 점점 상승하는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었다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쇄 잡지의 대안으로 최신의 정보를 최단시간에 제공하는 전자저널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되어, 1990년대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저널의 기능적인 장점은 ① 인쇄 잡지가 도착 전에 전문을 읽을 수 있는 신속성, ② 타이틀, 저자명, 키워드 등으로부터 검색되어지는 풍부한 검색기능, ③ 다른 문헌과의 링크기능, ④ 비디오, 음성등과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정보기능이 있다. 이용자측면에서의 장점은 ① 언제든지(24시간), 어디서든지(학교 내) 이용가능, ② 복수이용자가 동시에 이용가능, ③ 미착, 결호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 도서관측면에서는 ① 서가 스페이스의 절

2) 이란주, 황신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8권, 제2호(2003), pp.3-40.

3) 土屋俊 他, 電子ジャーナルで図書館が変わる(東京:丸善, 2003), pp.1-32.

약, ② 상호대차서비스업무의 경감, ③ 배가, 제본 등의 작업에 대한 노동력의 절감과 같은 장점을 들 수 있다. 또 전자저널은 인쇄저널보다 제작비용, 배포비용 등이 절감되어지는 이유로 학술잡지에 대한 가격저하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로부터의 전자저널에 대한 이용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최초의 전자저널은 1992년에 발행된 전자미디어잡지로, 심사 제도를 택하고, 영상자료도 포함하고 있는 OCLC의 'Online Journal of Current Clinical Trials'다. OCLC전용 통신·검색 소프트웨어 Guiden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 OCLC의 전자저널온라인서비스 Electronic Journal Online(EJO)를 제공하였다⁴⁾. Elsevier사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9개 대학을 대상으로 TULIP(The University Licensing Program)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Elsevier사와 Pergamon사가 발행하는 43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의 데스크 탑에 전송해서 기술적, 조직적, 경제적인 문제와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용자로부터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제공하는 전자정보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96년을 기점으로 거대출판사가 전자저널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해, Elsevier사는 TULIP프로젝트의 경험을 살려, 1996년 EES(Elsevier Electronic Subscription)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ScienceDirect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cademic Press(현재, Elsevier사에 합병되었다)는 1996년 IDEAL(International Digital Electronic Access Library)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는 2차정보서비스회사와 잡지의 유통 중개자들의 참가도 시작되어, OCLC의 Electronic Collections Online, Blackwell사의 Blackwell's Electronic Journal Navigator, Swets사의 SwetsNet등이 제공되었다.

전자저널의 계약방식은 크게 Bundle방식(전자저널 단독계약 불가)과 Separate방식(전자저널 단독계약 가능)이 있다. Bundle방식은 인쇄 잡지의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저널과 추가요금을 필요로 하는 저널로 구분되어져 있다. Separate방식은 ① 전자저널과 인쇄매체가 같은 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 ② 전자저널의 가격이 더 싼 것, ③ 전자저널의 가격이 더 비싼 것, ④ 인쇄 매체의 단독계약이 불가능해 가격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세분되어진다. Separate 방식의 잡지는 전자저널과 인쇄매체의 양쪽모두 구입할 경우만 싼값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출판사들은 Bundle방식의 요구,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인쇄매체의 취소금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거대출판사의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森岡倫子 他, 電子メディアは研究を変えるのか(東京: 勁草書房, 2000), pp.157.

2. 학술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과 학술연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는 기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도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과 웹의 등장으로 필요한 정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고, 간단히 읽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관련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즉, 전자도서관이 실현되었다⁵⁾. 대학도서관도 세계의 도서관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보에 민감한 연구자들에게 맞춰나가기 위해 전자도서관의 길을 선택하였다.

현재 전자도서관의 정보원으로써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전자저널이다. 네트워크 속도의 변화, 예산문제, 라이선스 문제, 아카이브 문제,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저널에 대해서 대학도서관은, 특히 출판사와의 계약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이용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은 1개의 도서관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 상호협력으로 커다란 1개의 조직처럼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컨소시엄으로는 OhioLINK⁶⁾로 17개의 공립대학, 23개의 전문학교, 43개의 사립대학, 그리고 Ohio공공도서관이 참가하고 하고 있다. 1998년 Electronic Journal Center(EJC)를 설립하여, 약70개 이상의 출판사로부터 5,600종의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다. OhioLINK는 주정부의 중앙예산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조지아주의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주(州)규모의 컨소시엄인 GALILEO⁷⁾(Georgia Library Learning Online)가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의 UKB⁸⁾(13개의 대학도서관연합, the Royal Library, the Library of the Royal Dutch Academy of Science and Open University)라는 16개의 도서관 컨소시엄과 영국의 NESLI(National Electronic Site Licensing Initiative)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KESLI(Korea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와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가 운영하는 컨소시엄, 일본의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자저널·TaskForce(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電子ジャーナル・タスクフォース), 중국의 CALIS⁹⁾(China Academ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가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전자저널의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5) 原田勝 他, *op. cit.*, pp.2.

6) <http://www.ohiolink.edu/about/what-is-ol.html> [cited 2004. 1. 12]

7) <http://www.galileo.usg.edu>[cited 2004. 1. 12]

8) <http://www.ukb.nl/>[cited 2004. 1. 12]

9) <http://www.lib.pku.edu.cn/html.calis/mnagement.htm> [cited 2004. 1. 12]

SPARC(The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와 HighWire Press가 있다. 이것은 거대출판사의 학술잡지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출판사를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자저널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일본의 J-STAGE와 한국의 KISTI-ACOMS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학도서관은 새로운 정보매체, 전자저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한국과 일본의 전자저널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

한국과 일본의 전자저널을 제공하는 출판사와 도입하는 도서관 이외에 출판사와 도서관 사이의 협의, 교섭 등을 대행하는 전자도서관 컨소시엄,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자저널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관, 국내에서의 영문논문의 전자저널 출판을 지원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기관

1.1 일본에서의 전자저널 상황

1996년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관기능의 충실·강화에 대해서」는 문부성(당시)의 학술심의회에서 발표되어, 대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기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을 보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 학술활동을 하자' 라고는 써 있지만, 많은 부분이 도서관 소장 자료의 전산화에 치중되어 있다¹⁰⁾. 즉, 정보유통의 기반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하는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1990년 후반의 인터넷에 대한 학술정보의 환경에 대해서는 무대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전자저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00년, 해외의 학술잡지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거대출판사의 학술출판사의 학술잡지에 대한 독점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출판사와 직접 교섭하고, 더 싼 가격으로 학술잡지를 구입

10) 原田勝 他, *op. cit.*, pp.9.

하고 있었다.

일본이 전자저널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도서관이 외국잡지를 어떻게 조절해왔는가'는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실제로 대학도서관이 외국잡지 비즈니스의 주체가 아니었다. 즉 대학도서관은 예산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 외국의 출판사와 일본의 도서관이 직접 대화 없이, 예약 대리점의 의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외국잡지의 위기문제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조직이 되지 못했다. 투고자이자 구독자인 연구자들과 도서관의 연계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1.2 일본의 전자저널 컨소시엄

(1) 대학단위의 컨소시엄

외국잡지의 가격상승과 엔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구입하고 있던 타이틀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정해져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단순히 구입 타이틀 수를 감소하는 것 이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많은 타이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학간의 컨소시엄이 결성되었다.

이것의 예로 나가오까기술대학(長岡技術大學)과 도쿄기술대학(東京工業大學)의 EES, 나가오까기술대학(長岡技術大學)과 고등전문학교(高等專門學校)의 IDEAL, 큐슈지구(九州地區)의 국립대학 컨소시엄, JIOC/NU등이 있다.

(2) 도서관협회간의 연계

일본의학도서관협회¹¹⁾(JMLA)와 일본약학도서관협회¹²⁾(JPLA)가 연계해서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결성하였다. JMLA와 JPLA가 운영하는 컨소시엄이 채택한 계약방식은 전자저널을 제공하는 측과 협의해서, 일정의 가격체계를 구축한 후 가맹 도서관들에 컨소시엄 참가안내를 하고, 각관에 맞게 참가하는 방식이다.

제공자로서는 ProQuest, BlackWell/Synergy, EBSCOMed잡지논문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SpringerLINK, LWW@Ovid컨소시엄, ScienceDirect등이 있다.

11) 2003년 11월 현재, 의학계 가맹 도서관 :80관, 치의학계 가맹 도서관 :15관, 기타 가맹 도서관 :19관 이 등록되어 있다. <http://wwwsoc.nii.ac.jp/jmla/> [cited 2004. 1. 12]

12) 약학대학, 제약회사, 연구소등의 도서관이 가맹하고 있고, 약학의 정보와 지식 등을 얻을 수 있다. <http://wwwsoc.nii.ac.jp/jpla/> [cited 2004. 1. 12]

(3)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자저널 TaskForce¹³⁾

전자저널 TaskForce 설치의 경위와 배경은 전자저널의 가속적인 제공, 저널의 성격변화-전자저널이 학술기반으로써 인쇄매체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거대출판사의 타이틀 단위에서 출판단위에의 타이틀 제공, 저널의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타이틀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TaskForce 설립의 직접적인 경위는 Elsevier사(이하 E사라고함)의 엔 가격 문제, 병행수입 문제 등에 대해 2000년 5월에 7개의 국립대학부속도서관장이 E사에 탄원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2000년 7월에 E사 사장이 협의에 대한 회답을 보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 2000년 9월 전자저널 TaskForce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조직으로써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2001년 6월까지의 단기간을 목표로 설립되었지만,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의회에서 1년 연장을 승인해, E사 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TaskForce는 출판사와의 협의 이외에, ① 전국 대학부속도서관에 대한 조사, ② 계약상황 조사와 각출판사와의 협의사항을 Q and A형식으로의 정리, ③ TaskForce내에서의 통계시스템 'Count Project'의 계획, ④ 전자저널 이용자 교육 담당자연수회 기본계획을 작성, ⑤ 전자저널 도입 경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TaskForce의 활동을 평가해, 2002년도 예산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한 중점분야 중 생명과학 관련 분야가 설치되어 있는 62개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의 전자저널을 체계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예산을 설치하였다.

1.3 J-STAGE¹⁴⁾

기술과학정보관련 전자저널은 구미를 중심으로 약 4000종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저널은 서지사항, 초록, 전문(Full Text) 검색기능의 제공, 목차, 신착논문의 알람서비스, 인용문헌의 링크 등 인쇄물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학회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전자저널을 위한 자료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학술잡지의 전자저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은 과학기술정보의 투고부터 공개까지 일관된 흐름을 인터넷상에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의 제공과 유통의 신속화·국제화를 꾀하기 위해 1998년 J-STAGE(Japa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ggregator, Electronic)의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다.

J-STAGE는 일본국내의 과학기술정보관계의 논문투고부터 출판, 인터넷에서의 제공까지,

13) <http://wwwsoc.nii.ac.jp/anul/tokubetsu/ejtask/index.html> [cited 2004. 1. 12]

14) <http://www.jstage.jst.go.jp/browse/> [cited 2004. 1. 12]

전자저널 발행의 전체 공정을 Web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J-STAGE에서는 편집, 심사 표준 지원 시스템, 전자저널 제작지원, 전자저널 공개시스템, 링크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 3월 현재, 저널 103종, 예비 투고집, 요약집, 보고서 등을 포함한 150종을 공개하고 있다.

1.4 SPARC/JAPAN (國際學術情報流通基盤整備事業)¹⁵⁾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프로젝트인 SPARC¹⁶⁾는 1998년 창설되어, 거대상업출판사의 손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는 학술정보를 연구자, 학·협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대출판사의 고액잡지에 대항할 수 있는 잡지를 간행해, 학·협회의 출판을 지원하고, 연구자에게 SPARC 활동을 PR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잡지 15종, 6단체의 학·협회 지원, 선진적인 프로젝트 5단체가 SPARC의 파트너로써 협력하고 있다. 2002년에는 유럽에서 SPARC Europe이 형성되었다.

2003년부터 학술정보유통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정보학연구소는 국제 학술정보유통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미국의 SPARC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SPARC/JAPAN이라고 통칭하였다¹⁷⁾. 일본에서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영문 논문지가 적고, 급속하게 발달되고 있는 전자저널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학술잡지를 발행하는 학·협회의 운영체제와 경영체제가 충분하지 않는 등 학술잡지유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SPARC/JAPAN은 일본의 학·협회뿐만 아니라 학·협회 그룹에 따른 전자적인 영문논문의 발행활동에 대해서도 다면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의 전자저널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전자적 출판활동이 촉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PARC/JAPAN이 원활하게 활동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학·협회와의 연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과 협회가 협력하고, 일본의 학·협회 등의 전자저널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 결성, 가격모델의 제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간행되는 영문논문의 전자문서화, 온라인문서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욕을 가진 학·협회와의 파트너관계가 필수불가결하다.

SPARC/JAPAN의 주관기관은 NII(국립정보학연구소)이고, 영문전자저널의 국제화, 인지도의 상승, 전자저널 비즈니스 모델 설립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 6월부터9월에 걸쳐 SPARC/JAPAN에 참가를 원하는 단체를 공모한 결과, 400학회, 기관지 50종이 응모해, 이 가운데 16학회, 기관지 21종을 채택하였다.

15) <http://www.nii.ac.jp/sparc/> [cited 2004. 1. 12]

16) <http://www.arl.org/sparc/home/index.asp?page=0> [cited 2004. 1. 12]

17) 安達淳他, “にみる學術情報の発信と大學図書館,” 情報の學術と技術, Vol.53, No.9(2003), pp.429-434.

2. 한국의 기관

한국에서 전자저널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국가의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저널의 컨소시엄 KESLI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추진기관이고, 해외학술DB의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며, 전자저널출판시스템 KISTI-ACOMS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다.

2.1 KESLI(Korea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¹⁸⁾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 KESLI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자도서관이 추진하는 NDSL구축사업으로 일환으로 전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외 학술전자저널을 공동구매하고, 전자저널 구입의 수준과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되어진 컨소시엄이다. 2003년 11월 현재, 5,82종을 제공하고 있는 33의 컨소시엄에 대학, 기업, 병원 등 276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KESLI 컨소시엄의 조건은 각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참가한 출판사의 인쇄저널 구독의 종류와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구독하고 있는 인쇄저널에 대한 전자저널의 이용만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각 출판사가 제공하는 전체의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KERI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¹⁹⁾

KERIS에서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와 해외전자정보국가라이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는 해외전자정보에 대한 공동의 수요를 국가기관이 교섭, 컨소시엄을 운영 하여, 효율적·합리적으로 학술정보를 도입, 유통하여 구독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또 서비스 질을 높이 것이 목적이다. KERIS국가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한 4년간(1999년~2002년)의 결과, 공동구매DB의 타이틀 800%의 증가, 공동구매에 참가하는 기관수 250%의 증가, 국가적인 예산절감의 효과는 4년간 56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었다.

해외학술잡지 이용의 증가에 따라, 대학 측은 제한되어있는 예산안에서 학술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요, 가격이 비싼 해외전자정보를 국가가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해외전자정보의 공동 활용 체제를 확립하고, 연구의 활성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국가라이선스 지원금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대학별 FTE(Full Time

18) <http://kesli.co.kr/ldcm/index.jsp> [cited 2004. 1. 12]

19) <http://www.keris.or.kr/main/main.jsp> [cited 2004. 1. 12]

Equivalents)를 기준으로 그룹화 하여, 전년도의 이용률, 「대학 학술정보 공동 활용의 협력」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다. KERIS의 지원금지불의 비율범위는 총 구독율의 25%~30%이다. 이러한 이유는 참가하고 있지 않은 대학의 구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예산부족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은 대학의 학술연구자에게도 해외학술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 KISTI-ACOMS²⁰⁾

학회의 재정적인 열악함, 정보수집, 가공, 서비스체계의 미정비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KISTI는 「학술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해서, 학회정보화의 지원금설치, 홈페이지 구축, E-Mail서비스, KISTI-ACOMS의 제공 등 학회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통합검색, 전자화 원문서비스 등을 통해서 학회정보지의 지속적인 공동 활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학술잡지의 생성부터 정보의 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한 KISTI-ACOMS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고 하여, 학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자원의 최신성, 신속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KISTI는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 서비스는 물론, 전자저널의 출판과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유통을 하기 위해, 논문투고 뿐만 아니라, 전자저널 출판시스템(KISTI-ACOMS)을 2002년에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과학기술분야의 학술논문의 투고부터 출판, 인터넷에서의 제공까지 실질적인 통합 자동문헌 관리 시스템으로 전자저널의 출판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논문수집기능, 논문가공기능, 논문심사기능, 전자저널생성기능, 논문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IV. 한국과 일본의 대학도서관 현황과 문제점

1. 일본의 대학도서관

일본의 4년제 대학은 2003년 현재, 국립대학99교, 공립대학75교, 사립대학512교가 있다. 이 가운데, 전자도서관기능을 제공하고, 교내LAN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어느

20) <http://society.kisti.re.kr/> [cited 2004. 1. 12]

정도 될까?

2003년에 발행된 「2002년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도서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비율은 국립대학 99교 100%, 공립대학 63교 84%, 사립대학 417교 81.4%이고, 도서관에서 교내 LAN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국립대학 99교 100%, 공립대학 65교 86.7%, 사립대학 441교 86.1%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 재정문제, 학교의 특징에 따라서 환경은 다르지만, 국립과 공립, 사립의 차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자저널 TaskForce라는 컨소시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1> 도서관으로부터 교내 LAN상에서의 서비스 내용

	1차정보DB	2차정보DB	CD-ROM	전자저널
국립대학	51	74	84	91
공립대학	7	19	28	23
사립대학	74	142	111	176

1.1 교토대학 도서관(京都大學圖書館)²¹⁾

교토대학 도서관은 2001년부터 패키지형태로 구입·제공하기 시작해 현재 12개의 출판사, 학·협회로부터 약 7000종의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자저널은 인쇄저널과 같이 구독하고 있다. 즉 Bundle계약이 대부분이다.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자저널 TaskForce에는 2000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전자저널 TaskForce는 전자저널에 대해서 출판사와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만 해 줄뿐, 계약은 대학도서관측이 집적 출판사와 해야 한다. 즉, 전자저널 TaskForce는 실제의 계약단계까지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출판사측은 현재 계약하고 있는 분량을 계속해서 구독하기를 강요하고 있고, 전자저널을 구독해 인쇄저널의 구독 필요성이 떨어져 취소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저널의 구독을 강요하거나, 무료 전자저널의 제공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저널에 대한 서지정보는 NII공동목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NII공동목록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수가 적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2002년도 도서관예산 약3억3천만 엔 중 도서관자료에 관한 예산은 약 1억5천만 엔으로, 이 가운데 전자저널의 예산비율은 약 1900만 엔을 차지하고 있다.

21) <http://www.kulib.kyoto-u.ac.jp/> [cited 2003. 12. 20]

전자저널 이용에 대한 이용자교육은 전자저널 TaskForce로부터 년 1회 전자저널이용교육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자저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다. 교토대학에서는 '대학생과 정보의 활용'이라는 공통과목을 통해서 OPAC이용, 전자저널 이용,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검색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전자저널만을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출판사와의 계약, 이용자 교육,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 출판사의 변경, 저널 타이들의 변동이 심한 전자저널에 대해서 모니터링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문제, 대학 내의 전자저널 계약문제 등이 있다. 현재 전자저널은 각 학부도서관, 연구소, 부속도서관이 각각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은 인쇄저널과 달라서 한곳에서만 계약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저널의 계약기준을 정한다면, 예산의 문제와 출판사와의 계약문제 등이 해결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한곳에서 계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전체의 전자저널 예산이 얼마인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교섭도 어렵다. 도서관측은 각 학부도서관, 연구소로부터 예산권을 받아 통합적인 계약을 희망하고 있다.

1.2 쓰쿠바대학 도서관 (筑波大學図書館)²²⁾

쓰쿠바대학 도서관은 2001년부터 전자저널을 구입하기 시작해 현재 외국저널 3,417종, 국내저널 410종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을 분리해서 계약하고 있다. Elsevier Science사와는 직접 계약하고 있고, 다른 출판사와는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다. 전자저널 TaskForce에 참가하고 있지만, 쓰쿠바 대학은 참가·조사의 협력만을 하고 있다.

전자저널 검색결과에 대한 서지사항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NII전자저널 공동목록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다. NII전자저널 공동목록이 본격적인 기능을 하는 단계가 오면 도입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다. 2003년 도서관자료에 관한 예산은 약 1억9천만 엔 중, 전자저널 계약금은 약 1천4백만 엔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9월~10월에는 중앙도서관, 체육·예술도서관, 의학도서관, 도서관정보대학도서관별로 전자저널, 잡지기사 색인검색, 전자도서관 이용방법 등의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자저널만을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 시스템정보과에서 2명, 수서과에서 1명, 참고봉사 담당 1명이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OPAC에서 전자저널 검색이 되지

22) <http://www.tulips.tsukuba.ac.jp/> [cited 2003. 12. 20]

않는 점, 통합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 그리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1.3 리즈메이강대학 도서관 (立命館大學図書館)²³⁾

리즈메이강대학 도서관은 1999년 4월부터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타이틀수는 LEXIS-NEXIS lexis.com : 신문류를 중심으로 약 100지(Full text), DialogSelect : 약 400타이틀, ProQuest : 약 500타이틀, Elsevier ScienceDirect²¹ Online : 165타이틀, 니케이텔레콤²¹ : 일본경제신문 등 4지, 아사히 신문 DNA : 아사히 신문, 아에라, 주간 아사히등 3지 등이 있다. 계약패턴은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계약, 전자저널만의 계약, 'free with paper'로써 전자저널을 이용하고 있다.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규모가 큰 관계로, 전자저널의 관심도가 대학에 따라 차가 크기 때문에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들 사이에서 사립대학도서관 컨소시엄 형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003년 도서관예산은 제본비, 연구도서를 포함한 금액 약6억8천만 엔 중, 전자저널에 관한 예산은 약6천9백만 엔으로 도서관예산총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리즈메이강대학 도서관은 이용자교육이 잘 되어 있다. 사서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안내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RAINBOW GUIDE라는 리즈메이강 종합정보시스템가이드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50명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스태프를 오픈 컴퓨터 룸(멀티미디어실)에 배치시켜 컴퓨터 이용자 상담을 하고 있다. 학생과 사서의 거리감을 줄이고, 도서관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저널을 관리하는 직원은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포함해 3명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은 통합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과 데이터베이스간의 검색, 소장하고 있는 정보간의 검색, 즉 여러 가지 자료가 한번에 검색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한국의 대학도서관

한국의 4년제 대학은 2003년 현재 국립대학59교, 사립대학199교가 있다. 2003년에 출판된 「한국도서관통계2003」에 의하면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는 비율

23) <http://www.ritsumei.ac.jp/www-lib/sogo/libindex.htm> [cited 2003. 12. 20]

은 국립대학 27교 46%, 사립대학112교 56%이고, 외국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국립대학40교 68%, 사립대학116교 58%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국립대학, 사립대학은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 그 원인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에는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참가하여도 예산상 커다란 절약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1 서울대학교 도서관²⁴⁾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1998년부터 Academic Press의 1종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 17개의 출판사, 학·협회로부터 전자저널과, 27출판사, 학·협회로부터 Web-DB를 포함하여 약 2만종의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저널의 경우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고, 한국 학술저널은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와 같은 제공회사와 계약하고 있다. 대학도서관과 출판사와 직접 계약하고 있는 전자저널은 JSTOR를 포함해 7종이 있다.

2002년 도서관예산은 약 30억원으로 전자저널을 포함한 전자 자료에 대한 예산의 비율은 전체예산의 1/3, 약 1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교육으로 개인별이용자 교육은 1개월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40명을 대상으로 2시간정도로, 과학기술분야는 2회, 인문사회분야 1회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주제별출장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서 이용자 교육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의학 관련 분야에 관한 자료 이용법을 교육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전자저널을 관리하는 직원은 수서1명, 이용담당 1명, 시스템관리 1명이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다. 모니터링담당자가 없는 점, 업데이트의 문제, 주제어(검색어)부여의 문제, 홈페이지 관리 인력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또 예산에 맞춰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2.2 KAIST 도서관²⁵⁾

KAIST도서관은 200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해, 19출판사, 무료 타이틀 180지를 포함하여 약 4,800종의 전자저널을 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한 계약이 대부분이고, 대리점을 통해서 직접 계약하고 있는 저널은 AIAA,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Robotis today가 있다. 한국 학술 잡지는 구독하고 있지 않고, 외국잡지만을 구독하고 있다.

24) <http://library.snu.ac.kr/> [cited 2003. 12. 21]

25) <http://darwin.kaist.ac.kr/> [cited 2003. 12. 21]

KAIST도서관의 2003년 예산은 약 25억원으로 전자저널을 포함한 전자 자료에 대한 예산 비율은 약 10억1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교육은 대학도서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ScienceDirect사로부터 1년1회 전자저널 이용자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전자저널을 관리하는 직원은 이용관리 1명, 수서담당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문제와 학생과 교수사이의 희망 저널의 선택 문제를 들고 있다.

2.3 연세대학교 도서관²⁶⁾

1998년 IDEAL의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 인쇄매체 약 6000타이틀을 구독하고 있고, 전자저널은 의학도서관, 지방캠퍼스가 구독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약 2만종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저널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고, IIMP FT와 JSTOR는 직접 출판사와 직접 계약하고 있다. 한국학술저널은 제공회사와 직접 계약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90년대 시스템 회사와 같이 개발에 참가한 'Maestro'라는 Web기반학술정보시스템과 2001년 개발한 XM Digital Library시스템을 통합해서 이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시스템 개발에 참가하고 있어서, 다른 대학도서관보다 정보의 업데이트가 빠르고, 검색에 필요한 주제어부여도 풍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도서관 예산은 약 28억4천만 원으로, 전자저널(e-book포함)은 약2억 5천만 원,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약 4억 4천만 원으로 합계 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자저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수서 1명, 열람 1명이 분담해서 담당 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도서관시스템인 'Maestro'와 'XMDL'이 아직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점과 서지 정보에서 URL 접속기능의 미비를 들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전자저널의 현황과 함께 한국·일본의 전자저널에 관한 기관,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전자저널에 대한 환경의 차이, 특징, 협력의 가능성 등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일본에 대한 전자저널의 도입, 운영 현황 등을 바

26) <http://libsvr.yonsei.ac.kr/dlsearch/TGUI/Theme/Yonsei/main.asp> [cited 2003. 12. 21]

당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 정리될 수 있다.

(1) 한국과 일본의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가장 큰 차이는 주관기관의 규모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의학도서관·약학도서관연합, 지역중심의 연합 등 다양한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저널, Web DB 컨소시엄을 국가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규모가 크고 결집력이 높다.

전자저널 컨소시엄 참가기관도 일본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의학도서관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기관은 대학은 물론, 연구소, 기업까지도 참가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컨소시엄은 앞으로 결집력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기관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계속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컨소시엄은 정부의 지원이 줄고, 그리고 없어질 경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일본은 현재, 국내의 많은 우수한 논문이 해외잡지에 투고되어 있는 이유가 국내에 국제적으로 유력한 학술잡지가 충분히 없다는 점을 들어, SPARC/JAPAN을 시작하였다. 전자저널 제작지원시스템 J-STAGE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의 우수한 영문논문이 국내에서 출판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가진 학술잡지가 세계에 통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수의 교육, 연구 등을 평가하는 '교수평가제'가 있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1년간의 연구 논문발표 수에 따라 승진의 기준이 되어 특별연구비의 지원, 연구 공간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하여, 해외 학술 잡지는 물론 국내학술지에도 연구논문이 투고되는 기회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국내잡지보다 더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해외잡지에 투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도 KISTI-ACOMS를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진 영문논문이 국내에서 출판될 수 있도록 SPARC/JAPAN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SPARC Europe과 같이 SPARC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나라들과의 교섭을 해 나간다면, SPARC Asia도 가능하지 않을까?

(3) 일본은 1977년부터 문부과학성에서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서 구입하고 있는 학술잡지의 수집, 제공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잡지를 일본 국내에 최소한 1부라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잡지센터'를 구상하였다. 9대학도서관²⁷⁾을 '외

27) *醫學·生物學系：大阪大學付屬図書館生命科學分館、東北大學付屬図書館醫學分館、九州大學付屬図書館分館 *理工學系：東京工業大學付屬図書館、京都大學付屬図書館 *農學系：東京大學付屬図書館

국잡지센터'로 지정해서 ILL을 통해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에게 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현재 국가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다량의 전자저널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대학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같은 종류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에게 전자저널뿐만 아니라 인쇄저널을 포함한 학술잡지의 질을 한층 높이고, 다양한 저널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 수집되고 있지 않는 외국잡지의 배치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자저널에 대한 ILL이 가능하지 않지만, 앞으로 가능해 질 경우 전자저널·인쇄저널 모두를 배치해 놓는다면 충실한 연구 환경이 될 것이다(현재, 영국 도서관은 아도피사의 전자 문서 전달의 새로운 표준기능을 활용하여, Elsevier사의 전자저널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전자저널 컨소시엄, SPARC등은 대학도서관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운영,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도서관의 협력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대학도서관간의 정보교환, 전자저널에 대한 최신정보 수집, 출판사,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협력, 이용자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저널 전문담당사서가 필요하다. 일본, 한국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있는 도서관은 적다. 대학도서관의 직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서관직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육성책이 필요할 것이다.

(5)한국·일본에는 다양한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학술연구정보의 원활한 유통, 특히 전자저널 계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설립된 국제도서관 컨소시엄 연합 ICOLC(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가 있다. ICOLC의 주된 활동은, 전자정보자료에 관한 정보, 특히 출판사, 정보제공업자의 가격 정책,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 컨소시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ICOLC에는 한국의 KERIS와 일본의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가맹되어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가 하고, 전자저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새로운 정보·변화를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측으로부터의 정보발신, 활동PR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들에게 이용되어온 학술 잡지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農學生命科學圖書館、鹿兒島大學付屬圖書館 *人文·社會科學系：一橋大學付屬圖書館、神戸大學人文·社會科學系圖書館

대학도서관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물론, 학술잡지에 관련 있는 출판사, 학·협회, 외국의 다양한 대학도서관의 활동 등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자국에 맞는 정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